



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현황 분석

조 미 영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국내 간호교육기관의 수는 2009년 12월 기준으로 4년제 86개교, 3년제 59개교로 총 145개이며, 최근 몇 년간 심화된 간호사 부족현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0년도 간호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1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2009). 그러나 현재 간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대부분의 신규간호사들은 바로 임상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부족한 실무 수행능력을 보완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역할 습득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지은옥, 2009; 이호경, 2005), 이것은 간호학 실습교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간호교육의 목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능력을 가진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 특히 실습교육은 학생들이 습득한 이론적 간호지식을 임상현장에서 통합하고 적용하여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재창조해내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기본간호학실습교육과 임상실습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기본간호학실습교육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기본간호이론과 술기를 익히는 기초과목으로 임상현장에서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있다(유계희, 1995). 임상실습교육의 목적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학생이 습득

한 이론교육과 간호술기를 적용하는 교육방법으로 실습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기술, 의사소통 능력, 시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증가시키는데 있다(Löfmark, & Wikblad, 2001). 뿐만 아니라 Cope, Cuthbertson 및 Stoddart (2000)는 실제 전문직 간호실무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간호학생들이 이론에 근거한 간호술기를 습득한 후, 이를 실제 복잡하고 상황화된 실습환경에서 학습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기본간호학실습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은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임상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가진 신규간호사의 양성에 최종 목적이 있으므로 임상상황에서 서로 연계성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기본간호학실습교육은 간호술기의 습득기회가 부족하며, 실습실에서 모형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간호기술을 반복, 훈련하기 때문에 실제 임상실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변영순, 2005). 또한 임상실습교육도 이론과 실무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실습지도교수의 부족과 학생들의 실습의욕 저하로 학생들이 다양한 간호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채(조미혜, 권인수, 2007)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의 보유 및 실무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습교육의 문제점들 중에서 특히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술기 및 임상실습경험의 부족은 신규간호사의 실무능력 저하와 관련되어 간호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고 있는 간호교육기관의 실습교육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최근

주요어 : 간호교육, 임상실습, 기본간호실습

1) 대한간호협회 교육국제국장(교신처자 E-mail: myjho2001@hanmail.net)

투고일: 2010년 10월 15일 심사완료일 2010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14일

몇 년간 실습교육 연구들은 어떻게 수행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실습교육의 다양한 문제점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 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간호학 교수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실습교육 효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발전적 대안을 연구를 통해 실험, 검증하여 그 연구결과를 실습교육 개선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간호학실습교육 연구들은 기본간호학실습교육과 임상실습교육 분야에서 따로 연구되어왔고, 기본간호학실습교육 논문보다는 학생들의 임상 수행능력 함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임상실습 논문들이 주로 연구되어졌다. 또한 국내 기본간호학실습관련 논문들을 종합,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나 4년제 간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간호학실습교육 현황을 조사한 연구(변영순, 2005)가 있었으며, 임상실습 관련 논문들을 종합, 분석한 국내 연구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외 간호학 임상실습교육 논문을 분석한 연구(권인수, 2002)가 있었다. 두 가지 형태의 실습교육을 연계하여 연구한 것으로는 임상실습에서 기본간호술 수행정도와 기본간호학 실습경험에 대한 연구(김연하, 2002; 김인숙, 최영아, 2002)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기본간호학 및 임상 실습교육 관련 논문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간호학 실습교육의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간호학 실습교육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기본간호학실습 및 임상실습 관련 연구경향을 비교, 분석하여 간호학 실습교육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본간호학실습논문과 임상실습논문의 연도별 발표 논문 수, 논문의 유형과 발표 학술지, 연구설계 유형, 연구 대상자, 자료수집 방법, 실습영역, 연구 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 향후 실습교육의 문제점 해결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학 실습교육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다.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간호학실습교육이라 함은 기본간호학실습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을 의미한다.

- 기본간호학실습교육
기본간호학은 전문직 간호의 토대가 될 기본 이론과 기술

을 익히는 간호학습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을 말하며(유재희, 1995), 본 연구에서의 기본간호학실습교육이란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 기본간호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간호술(nursing skill)을 훈련하는 실습교육과정을 말한다.

● 임상실습교육

임상실습교육은 간호교육을 바탕으로 환자간호를 위한 학생들의 실습경험을 직접 계획, 조직하여 가르치고 지도하며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신경림, 1993),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교육이란 학생들이 이론적 간호지식을 토대로 임상 현장에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중재를 적용한 결과를 평가하고 훈련시키는 실습교육과정을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실습교육에 관한 논문들을 구조화된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논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발표된 간호학실습교육 관련 논문으로 하였다. 논문의 선정을 위해 간호학 관련 학술지 및 학위논문들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인터넷 학술정보 사이트인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한국학술정보㈜), DBpia(누리미디어)를 이용하여 63편을 검색하였으며, 이 중 선정기준에 만족하는 국내 논문 48편(기본간호학실습 관련 논문 8편, 간호학임상실습 관련 논문 40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1) 4년제와 3년제 간호교육과정 중 실습교육과 관련된 연구, 2) 간호학생의 실습 교육내용, 교육방법, 실습평가와 관련된 연구였다.

대상 논문의 발표년도를 8년으로 제한한 것은 역대 간호학 실습교육 논문들을 검색한 결과, 연구주체의 시대 적절성과 반복성을 고려하고, 기존 임상실습 관련 논문분석 연구(권인수, 2002)의 발표 시기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 논문은 컴퓨터를 통해 해당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기본간호학실습’, ‘기초간호과학실습’, ‘간호학 임상실습’, ‘임상간호실습’ 을 주요용어(key word)로 넣어 검색

색되는 논문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현재 발표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들이 on-line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동 탐색은 하지 않았으며, 주요용어 입력으로 검색된 논문들 중에 기본간호학실습과 임상실습 분야 양쪽에서 모두 검색되는 논문은 내용상 더 가까운 분야에 포함시켜 중복을 피하였고,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는 학위논문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내용

본 연구의 분석 내용은 기존 논문분석 연구(권인수, 2002; 방경숙, 이선옥, 박영임, 전명희, 김현숙, 손행미, 강정희, 유수정, 2008)들을 고찰한 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연도별 발표 논문 수, 논문의 유형과 발표 학술지, 연구설계 유형, 연구 대상자, 자료수집 방법, 실습영역, 연구개념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 틀에 따라 해당변수별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다.

연구 결과

연도별 논문 수

지난 8년간 간호학실습교육과 관련된 국내 논문 수는 총 48편이었다<Table 1>. 국내 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6년을 전후로 논문들을 2002~2005년과 2006~2009년으로 4년씩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02~2005년의 경우 임상실습논문 수(24편)가 기본간호학실습논문 수(6편)보다 4배 더 많았으며, 2006~2009년에는 임상실습논문 수(16편)가 기본간호학실습논문 수(2편)보다 8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본간호학실습논문 대비 임상실습논문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논문 편수는 오히려 감소되었다. 전체 실습교육 논문 수도 2002~2005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30편으로 2006~2009년에 발표된 18편보다 더 많았다.

또한 기본간호학논문이나 임상실습논문이 발표되는 경우 학

<Table 1> Number of studies by year (N=48)

Year	Type	Fundament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2002-2005	Journal	4	18
	Thesis	2	6
2006-2009	Journal	0	11
	Thesis	2	5
Total(%)		8(17%)	40(83%)

위논문보다는 학술지에 더 많이 게재되었는데, 임상실습논문의 경우 학술지에 29편이 발표되어 전체의 73%를 차지하였다.

논문의 발표유형

지난 8년간 논문 발표 학술지를 보면<Table 2>, 임상실습논문의 학술지 발표의 경우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11편(38%)으로 가장 많이 게재되었고, 간호행정학회지 7편(24%), 교내학술지 4편(14%), 기타 4편(14%), 대한간호학회지 2편(7%), 성인간호학회지 1편(3%) 순이었다. 기본간호학 실습논문의 학술지 발표는 총 4편으로 교내 학술지가 2편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간호학회지, 한국간호교육학회지 각각 1편씩이었다.

기본간호학실습과 임상실습논문을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경우, 석사학위논문에서 각각 3편(75%), 9편(82%)으로 박사학위논문의 1편, 2편보다 많았으며, 특히 기본간호학실습논문은 학위논문 발표수와 학술지 발표수가 4편으로 같았다.

<Table 2> Publication type of journals (N=48)

Type	Classification	Fundament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Thesis	Master	3	9
	Doctoral	1	2
Journal	J Korean Acad Nurs ¹	1	2
	J Korean Acad Soci Nurs Edu ²	1	11
	J Korean Acad Adult Nurs ³	0	1
	J Korean Acad Nurs Admin ⁴	0	7
	College publication	2	4
	Others	0	4
	Total		8

¹ : J Korean Acad Nur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² : J Korean Acad Soci Nurs Edu :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³ : J Korean Acad Adult Nurs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⁴ : J Korean Acad Nurs Admin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연구 대상자

연구대상자는 기본간호학실습과 임상실습 영역에서 모두 간호학생이 많았으며, 각각 6편(75%), 32편(80%)이었다. 간호학생이 연구 대상자인 경우, 기본간호학실습논문에서는 각 학년별로 골고루 포함되었으나, 임상실습논문의 경우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5편(47%) 이었고 2, 3, 4학년을 모두 대상으로 한 경우가 8편(25%) 이었다. 간호학생의 학년이 기재되지 않은 논문은 전체 논문 중에서 6편이었다<Table 3>. 실습교육 교수를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는 임상실습논문에서만 1편이었고, 임상간호 교육자 대상논문은 2편이었다. 그 외 간

호학과를 대상으로 한 논문 2편, 실습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한 논문 1편 등이었다.

<Table 3> Distribution of research subjects (N=48)

Type	Classification	Fundament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	Freshmen	1	0
	Sophomore	3	4
	Junior, senior	1	15
	Sophomore, junior, senior	0	8
	Not mention	1	5
Nurse	New, head nurse	0	1
	Head nurse	0	1
Student, professor, (head)nurse		1	0
Professor		0	1
Clinical instructor		0	2
Nursing college		1	1
Others		0	1
Article		0	1
Total		8	40

연구 설계 유형

본 연구에서 연구 설계 유형을 크게 실험연구, 비실험연구, 질적 연구 등으로 구분할 때, 실험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논문 2편(25%), 임상실습논문 4편(10%)에 불과하였으나 비실험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논문 6편(75%), 임상실습논문 26편(65%)으로 많은 수의 논문들이 해당하였다. 기본간호학 실습논문 중 질적연구는 한편도 없었고 임상실습논문에서만 8편(20%) 있었다. 또한 임상실습논문에서 Q-방법 연구와 기타 논문이 각각 1편씩 있었다<Table 4>.

<Table 4> Number of study by research design (N=48)

Research design	Type	Fundament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Experimental design	Quasi	2	4
Non-experimental design	Survey	5	15
	Correlation	0	9
	Comparison	1	0
	Case study	0	2
Qualitative design	Phenomenology	0	3
	Focus group	0	2
	Content analysis	0	3
Q-methodological design		0	1
Others	Network analysis	0	1
Total		8	40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지법이 총 34편(71%)으로 가장 많았다<Table 5>. 다음으로 면접법 5편, 자가보고 기록 3편이었으며, 인터뷰와 관찰방법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논문도 2편 있었다.

기본간호학실습논문의 경우 설문지법이 7편(88%)으로 대부분이었으나, 임상실습논문은 설문지법(68%) 뿐 아니라 관찰, 면접, 사례조사, 검색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5> Data collection method (N=48)

Data collection method	Fundament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Total(%)
Questionnaire	7	27	34(71)
Interview	0	5	5(11)
Observation	0	0	0(0)
Case study	0	1	1(2)
Q sort	0	1	1(2)
Self report(journaling)	1	2	3(6)
Search(literature, DB)	0	2	2(4)
Complex method	0	2	2(4)
Total(%)	8	40	48(100)

실습영역

기본간호학실습논문의 실습영역은 기본간호학 영역이 5편(63%)으로 많았으나 교수학습방법과 관련된 논문도 3편(38%) 있었다. 임상실습논문의 실습영역은 내·외과, 모성·아동, 정신, 노인 등 세부 전공별로 분포되어 있었으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임상실습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32편(80%)으로 가장 많았다<Table 6>.

<Table 6> Practice field (N=48)

	Fundament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Fundamental nursing	5	Medical-surgical	1
Field unidentified	3	Maternity-child	1
		Psychiatry	1
		Special ward	2
		Field unidentified	32
		Others	2
		Elderly	1
Total	8	Total	40

연구 개념

연구개념은 기본간호학실습논문과 임상실습논문을 양적연구 방법과 질적연구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7>.

〈Table 7〉 Research concept

(N=48)

Practical type	Research method	Research concept	Number	Total			
Fundamental practice	Quantitative	Performance in basic nursing skill	1	8			
		Nursing competency	2				
		Experience of fundamental practice	1				
		Problem based learning	1				
		The present state of fundamental practice	1				
		Teaching method in self-directed practice	1				
		Using standardized patients	1				
			0		0		
		Clinical practice	Quantitative		Preceptorship	2	32
					Faculty efficiency	2	
Clinical faculty system	1						
Stress of clinical practice	5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6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1						
Experience of clinical performance	1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ability	1						
Perceived nurse image by nursing students	2						
Self perception	1						
Practical experience and status of oriental nursing	1						
The present state of nursing practical education	1						
Standard of clinical education	1						
Participatory education	1						
m-learning	1						
Collaborative learning	1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1						
Blended learning	1						
Nursing school-hospital collaborative nursing practice	1						
Analysis of researches	1						
Qualitative	Developing clinical practice education model		1	8			
	Preceptorship		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5				
	Problem based learning		1				
	Total				48		

기본간호학실습논문에서는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전체 기본간호학 실습논문 수와 같은 8편(100%)이었고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없었으며, 연구개념은 기본간호학 수행능력과 관련된 개념들이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본간호학실습 경험 1편이었다. 그 외 문제중심 학습방법과 기본간호학 실습현황, 실습교수방법, 표준화 환자 이용이 각각 1편씩이었다.

임상실습논문은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32편(80%),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8편(20%)으로 질적연구방법이 기본간호학실습논문에 비해 활발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적연구의 개념은 대부분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것(5편)이었고, 임상간호 실무교육모델 개발, 프리셉터쉽, 문제중심학습이 각각 1편씩이었으며, 구체적인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현상학적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3편), 포커스 그룹(2편), 내용분석(3편) 순이었다.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임상실습논문의 경우, 임상실습 만

족도(6편)와 임상실습 스트레스(5편)가 가장 많았고, 프리셉터쉽, 교수 효율성 등이 2편씩이었다. 그 외 임상실습경험,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 임상교육표준, 임상교수제도 등이 1편씩이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관련 개념인 m-learning, Blended learning, 학교-병원 협력실습, OSCE(객관구조화 임상시험방법) 등도 1편씩 있었다.

논 의

연도별 논문 수 및 발표유형

최근 8년간 국내 기본간호학실습교육과 임상실습교육 논문 수를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02~2005년의 경우 임상실습논문 수가 기본간호학실습논문 수에 비해 4배(24편/6편) 더 많았고, 2006~2009년에는 8배(16편/2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기본간호학실습보다 임상실습 관련 연구가 보다 많이 이

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임상실습교육이 기본간호학실습교육을 통해 먼저 습득한 간호술기를 기초로 하여 실제 여러 실습영역에 적용하는 통합실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습시간과 내용이 더 많을 뿐더러,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함으로써 학생 뿐 아니라 교수들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권인수(2002)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외 임상실습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 7편, 국외 29편이었다는 결과와 비교해볼 때, 국내 논문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실습교육 논문수를 보면 2002~2005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30편)이 2006~2009년에 발표된 논문(18편)보다 더 많아서 최근 실습교육 논문수가 오히려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06년을 전후로 국내 의료기관의 재직 간호사 수의 부족이 심화되어(대한간호협회, 2009) 간호사의 보유정책 시행 뿐 아니라,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교육기관에서의 실습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간호교육자들이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질적이고 다양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 및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을 많이 발표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발표유형을 보면, 임상실습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할 경우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11편을 발표하여 전체 학술지 발표의 38%를 차지하였고, 간호행정학회지, 교내 학술지 등의 순이었다. 이것은 방경숙 등(2008)이 분석한대로 한국간호교육학회지가 간호학의 세부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간호학 담당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간호교육을 주제로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자를 분석해보면, 기본간호학실습과 임상실습논문 모두 간호학생이 많았으며(80%) 특히 임상실습논문 40편중에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전체 임상실습논문의 80%(32편)를 차지하였다. 간호학생 중에서는 3, 4학년 학생들이 전체의 72%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3, 4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임상실습이 시작되고 이로 인한 간호학생의 실습 적용 등 다양한 문제와 쟁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시기의 임상실습 결과가 신규간호사의 실무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간호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논문 중에서 간호학실습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임상실습 교육자(clinical instructor)에 대한 연구가 총 2편에 불과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들의 세부 연구개념은 프리셉터쉽, 임상 실습교수제도의 도입이었는데, 효과적인 실습교육을 위해서는 교수를 포함한 임상

실습 교육자제도에 대한 검토 및 교수 효율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내 많은 간호교육기관에서는 이론교육 교수와 실습교육 교수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론 교수가 최신의 임상경험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실무간호사나 강사를 실습교육 교수에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론과 실습내용 간의 간극이 발생하게 되므로 간호 학생들에게 혼란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쉽다. 미국에서는 실습교육을 지도하는 전체 간호학 교수진(faculty)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여 교수의 자질(Clark, 2008), 임상실습교육자의 교수 효율성(Reeve, 1994) 및 교수 정규직 여부에 따른 간호학생의 교수 효율성 인식(Allison-Jones & Hirt, 2004), 교수멘토링 프로그램(Blauvelt & Spath, 2008) 등 다양하다. 국내에서도 간호학생들이 실제적이고 활용 가능한 간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 교수진과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뿐더러, 실습 교육자의 실습 지도능력, 실무 및 교육 경험, 역할에 대한 표준화, 교수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연구설계 유형과 자료수집 방법을 함께 분석해보면, 비실험 연구가 기본간호학실습논문 6편(75%), 임상실습논문 26편(65%)으로 실험연구에 비해 더 많았고, 자료수집 방법에서 전체 48개 논문 중에서 34편(71%)이 설문지법이었다는 것과 연계하여 볼 때 아직까지 국내 실습교육 논문들이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가 대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권인수(2002)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 임상실습교육 논문을 분석한 결과 설문지법이 71%로 가장 많았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또한 질적연구는 기본간호학실습논문에서는 한편도 없었고 임상실습논문에서만 8편(20%) 있었으며, 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임상실습논문이 주로 간호학생의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을 주제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실습영역에 대한 분석을 보면, 기본간호학실습논문에서는 기본간호학영역 외에도 문제중심학습(이경희, 2002), 자율실습 지도방법(홍승희, 2009) 등 교수학습방법 관련 논문들이 포함되었다. 임상실습 논문에서는 내·외과, 모성·아동, 정신, 노인, 간호관리 등 세부 전공과목별 논문들이 소수 있었으나 특정 전공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인 임상실습 영역에 대해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전체 임상실습논문에서 연구 대상자의 58%가 3, 4학년 간호학생 혹은 졸업을 직전에 둔 4학년 학생들이었고, 주로 이들의 임상수행 경험,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등에 대해 연구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간호교육기관에서 간호학 전공과목별 이론교육 후 전공과목별 임상실습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습교육 연구들은 대부분 전공영역별로 수행되지 않고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므로 실습교육 연구의 폭이 제한되고 실습과 연구의 연계성

이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실습교육 연구들은 실제 간호학 실습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수행되어 실습의 문제점 파악과 실습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 논문 중에서 기본간호학실습과 임상실습을 연계하여 연구한 것으로 임상실습에서의 기본간호술 수행정도(김연하, 2002)와 기본간호학 실습경험(김인숙, 최영아, 2002)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유문숙(2001)은 기본간호학실습교육에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학습방법의 효과 연구에서 기본간호학실습교육을 임상상황에서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현재의 기본간호학실습교육이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임상환경에서 학생들이 이해하고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임상상황에서 학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임상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학습할 때 학생들의 간호실무 수행능력이 증진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향후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연구시 실제 혹은 유사 임상상황에서 간호학생들에게 기본간호술기를 교육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연구에서도 간호학생에게 임상상황에 근거한 실습방법을 적용한 후의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1학년부터 3, 4학년 학생들까지 임상수행능력의 중단적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시기별로 효율적인 임상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념

연구개념을 분석해 보면, 기본간호학실습논문과 임상실습논문 양쪽에서 주로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술 및 임상실습 수행 능력과 실습경험, 만족도, 스트레스,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이었다. 1990년대 간호학 실습교육논문의 주요 연구개념들이 간호학생의 간호지식, 실습 스트레스, 만족도, 태도, 경험 등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2000년 이후의 논문들에서는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임상수행능력 등으로 연구 개념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실습교육 목표가 임상상황에서 간호학생들이 간호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 수명이 연장되고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병양상이 변화하였고, 의료기관의 임상세팅과 의료 기술들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학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발전 속도를 따라 갈 수 없게 되면서 간호사가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학부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습교육 연

구에서 오랫동안 많이 사용된 간호학생의 실습만족도와 스트레스와 같은 개념들은 실습효과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양적도구를 사용하여 단면적으로 측정한 경우가 많았고, 학생들의 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실습 만족도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연계한 논문이 부족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대상 논문에서 매우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율 실습지도방법, 표준화환자 활용, 참여교육, Blended learning, 학교-병원 협력학습 등 교육프로그램 및 교수학습방법이었던 것은 간호교육자들이 간호학생의 실무능력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고무적이라고 본다. 실제 성가연(2008)과 유문숙 등(2002)의 연구에서도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실습교육방법이 전통적 실기학습법 등 다른 학습방법보다 간호학생들의 임상적 판단능력, 간호기술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습교육 연구들이 나오게 된 것은 최근 의료환경에서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권리가 높아지고, 많은 의료설비 및 간호업무가 복잡화, 기계화되면서 간호학생들이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실습병원의 간호사도 바쁜 업무로 인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습 지도를 해줄 수 없는데 기인하므로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실습방법과 내용, 실습환경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양적 임상실습논문의 연구개념으로 PDA를 이용한 m-learning, 객관구조화 임상시험 방법인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가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간호학실습교육에 최신 과학기술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반복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 결과를 축적하여 실습교육 개선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 간호학실습교육 연구에서도 교수학습방법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습교육의 문제점 중 학생들의 기본간호술기 및 임상실습 경험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임상 혹은 유사 상황에서 지식 및 술기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2000년 이후, 간호학 실습교육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Nehring, 2008). 즉 간호대학 캠퍼스에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일반병동 등 실제 임상현장과 똑같은 시뮬레이션 실습 센터를 설치한 후 학생들에게 기본간호 술기교육 뿐 아니라 체계적인 임상실습모델에 따라 교육시키고 있다. 미국 간호대학에 시뮬레이션 센터가 등장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이 유용한 임상실습기관이 부족하고(Nehring & Lashley, 2009; Kline & Hodges, 2006), 임상현장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기 위

해서였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실습은 NLN(National League for Nursing)의 SIRC(Simulation Innovation Resource Center)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NLN, 2009), 그 연구결과들은 시뮬레이션 실습이 간호학생들의 비판적사고, 임상판단, 감정적 학습, 의사소통기술,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데 효과적인 실습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Nehring & Lashley, 2009). 국내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교육은 일부 간호교육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대한간호협회, 2009), 관련 연구도 4~5년 전어야 시작되었으며 주로 임상 적용연구들로 대학 실습교육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8년간 국내 기본간호학실습교육과 임상실습교육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간호학실습교육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거 실습교육 연구들이 간호학생들의 스트레스, 실습만족도 등 간호학생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최근 연구들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고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원하는데 비해 부실한 실습교육을 받고 졸업한 신규간호사들이 낮은 수행능력과 적응력으로 인해 이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교육기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간호학생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과 교수자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간호학생의 부실한 임상실습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시뮬레이션실습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국내 기본간호학 및 임상실습교육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간호학실습교육 연구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논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된 간호학실습교육 관련 논문들로, 인터넷 학술정보 사이트인 R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DBpia에서 검색되는 논문들 중에서 간호학생의 실습교육내용, 교육방법, 실습평가와 관련된 논문 4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논문들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변수별 빈도와 백분율로 구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난 8년간 간호학실습교육과 관련된 국내 논문 수는 총 48편(기본간호학실습 관련 논문 8편, 간호학임상실습 관련 논문 40편)이었으며, 임상실습논문이 기본간호학실습논문보다 더 많았다. 연구대상자는 기본간호학실습과 임상실습영역에

서 모두 간호학생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6편(75%), 32편(80%)이었다.

- 연구설계유형을 보면 실험연구보다 비실험연구가 더 많아서 기본간호학실습논문의 75%, 임상실습논문의 65%였고, 자료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이 총 34편(71%)으로 가장 많았다.
- 기본간호학실습논문의 실습영역은 기본간호학영역 5편(63%), 기본간호학영역과 관련된 교수학습방법 관련 논문 3편(38%)이었다. 임상실습논문의 실습영역은 내·외과, 모성·아동, 정신, 노인 등 세부 전공별로 분포되어있었으나, 영역을 구분하지 않은 논문이 32편(80%)으로 가장 많았다.
- 기본간호학실습논문의 연구개념은 기본간호학 수행능력과 관련된 개념들이 3편으로 가장 많았고, 기본간호학실습 경험 1편, 문제중심 학습방법 등이 각각 1편씩이었으며,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8편(100%)이었고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은 없었다. 임상실습논문은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32편(80%),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8편(20%)이었는데, 질적연구의 개념은 대부분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것(5편)이었고, 현상학적 방법이 3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임상실습논문의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6편)와 임상실습 스트레스(5편)가 가장 많았고, 프리셉터쉽, 교수 효율성 등이 2편씩이었으며,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 1편 등이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관련 개념인 m-learning, Blended learning, 학교-병원 협력실습, OSCE(객관구조화 임상시험방법) 등도 1편씩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8년간의 간호학 연구들은 간호학생들의 실습경험 부족을 보완하면서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간호사의 양성을 위해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기술,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하고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지만, 교수, 교수학습방법,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효과적인 간호학실습교육을 위해 교수학습방법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하고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졸업 후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교육에 시뮬레이션실습을 적극 활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필요하며, 이를 국외의 연구들과 비교·분석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내 간호학실습교육 연구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나아가 간호학실습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권인수 (2002). 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연구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5), 706-715.
- 김인숙, 최영아 (2002).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서 기본간호 실습경험. *김천과학대학논문집*, 28 63-70.
- 김연하 (2002). *임상실습 종료 후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술 수행 정도와 자신감: 수행빈도가 낮은 기본간호술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대한간호협회 (2009). 한국 간호교육 및 간호사 현황. 미출간 정책자료.
- 박경숙, 황윤영, 최은희 (2003).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3), 373-382.
- 방경숙, 이선옥, 박영임, 전명희, 김현숙, 손행미, 강정희, 유수정 (2008). 2007년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논문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244-251.
- 변영순 (2005). 4년제 간호대학(과)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169-176.
- 성가연 (2008).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인슐린 피하주사 실습교육의 효과* 을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신경림 (1993). 임상교육의 효과적인 대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32(5), 93-104.
- 이경희 (2002). 기본간호학의 문제중심학습 적용방안(2). *울산과학기술대학 연구논문집*, 28(2), 183-196.
- 이호경 (2005). *신규간호사의 성격특성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충남.
- 유문숙 (2001).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에 있어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학습방법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1), 94-109.
- 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의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3), 327-335.
- 유재희 (1995).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 *기본간호학회지*, 2(1), 200-211.
- 조미혜, 권인수 (2007).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간호활동 경험 정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2), 143-154.
- 지은옥 (2009). *신규간호사의 현장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서울.
- 홍승희 (2009). *자율실습 지도방법에 따른 간호학생의 기본간호학 실습성적, 자신감, 만족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Allison-Jones, L. L., & Hirt, J. B. (2004). Comparing the teaching effectiveness of part-time & full-time clinical nurse faculty. *Nurs Educ Perspect*, 25(5), 238-243.
- Blauvelt, M. J., & Spath, M. L. (2008). Passing the torch: A faculty mentoring program at one school of nursing. *Nurs Educ Perspect*, 29(1), 29-33.
- Budgen, C., & Gamroth, L. (2008). An overview of practice education models. *Nurse Educ Today*, 28, 273-283.
- Cope, P., Cuthbertson, P., & Stoddart, B. (2000). Situated learning in the practice placement. *J Adv Nurs*, 31(4), 850-856.
- Clark, C. M. (2008). Student voices on faculty incivility in nursing education: A conceptual model. *Nurs Educ Perspect*, 29(5), 284-289.
- Kline, K. S., & Hodges, J. (2006). A rational approach to solving the problem of competition for undergraduate clinical sites. *Nurs Educ Perspect*, 27(2), 80-84.
- Löfmark, A., & Wikblad, K. (2001). Facilitating and obstructing factors for development of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a student perspective. *Issues and Innovations in Nursing Education*, 34(1), 43-50.
- National League for Nursing, New York, Simulation Innovation Resource Center. (2009, December). SIRC News. Retrieved December 21, 2009, from web site : <http://sirc.nln.org/>
- Nehring, W. M. (2008). U. S. Boards of nursing and the use of high-fidelity patient simulators in nursing education. *J Prof Nurs*, 24(2), 109-117.
- Nehring, W. M., & Lashley, F. R. (2009). Nursing simulation: A review of the past 40 years. *Simul Gaming*, 40(4), 528-552.
- Reeve, M. M. (199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effectiveness of clinical instructor. *J Nurs Educ*, 33(1), 15-20.
- Stoner, M. S. (2009). Using high-fidelity simulation to educate nursing students about end-of-life care. *Nurs Educ Perspect*, 30(2), 115-120.

An Analysis of Research on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Korea

Jho, Mi Young¹⁾

1) Director, Education-international Relations, Korean Nurses Association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propose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study related to nursing practice education by grasping the trend of study in fundamental and clinical practice. **Method:** A total of 48 research articles which were published on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Korea from 2002 to 2009 were analyzed with structured analysis forms. **Result:** Most research wa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n=40). A high percentage of non-experimental research design was related to fundamental practice (75%) and clinical practice (65%). Qualitative research was only used in clinical practice (n=8). Nursing students were predominantly selected as an object of research in fundamental practice (n=6) and clinical practice (n=32). In addition, many of the areas in clinical practice were a general clinical setting without any classification of the specific area. The concepts of research in fundamental practice were related to competency in basic nursing skill and most concepts of research in clinical practice were associated with satisfaction, stress, experience,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nursing student. **Conclusion:** There's something to be desired in nursing research related to instructor methods,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nursing education programs. Therefore, more specific and continuous research focused on these topics to improve clinical nursing competence of the nursing student is needed.

Key words : Nursing Education, Clinical Practice, Fundamental Practic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ho Mi Young

Korean Nurses Association

95, Hullyeonwon-ro, Jung-gu, Seoul 100-400, Korea

Tel: 82-2-2260-2520 Fax: 82-2-2260-2529 E-mail: myjho2001@hanmail.net